

2015. 4. 27 ~ 5. 3 주간

31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축산물 가격동향

■전남 농특산물 수급동향

전남 대파·양파 수급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강진군 “절화수국 12만본 日 수출 목표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찾ыл 기계 수확으로 생산비 절감하자

■정책동향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구축

■해외 농업정보

브라질 트럭소송 파업, 30일 후 브라질의
대두수출에 영향 미칠 듯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전반에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후반은 비슷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감자, 당근

- 감 자 : 감자 가격은 시설봄감자 출하가 시작되어 전월보다 낮지만 평년보다 높은 36,000~41,000원/20kg 전망
- 당 근 : 겨울저장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은 21,000~26,000원/20kg 전망

▶ 축산물 : 육계, 돼지

- 육 계 : 도계 마릿수, 수입 증가로 5월 육계 산지가격 1,500~1,700원/kg 전망
- 돼 지 : 5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출하 마릿수 감소로 5월 지육가격 기준 kg당 5,000~5,200원 전망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대파·양파 수급동향

- 대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30%인 3,408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1,381원/kg(전년 840원 대비 64% ↑)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11,077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851원/kg(전년 698원 대비 22% ↑)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라남도)

- ▶ 강진군 “절화수국 12만본 日 수출 목표”
- ▶ 산업부,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101개 발굴 추진
- ▶ aT, 임산물 해외 판로 다각화...온라인 쇼핑몰·홈쇼핑 홍보 강화
- ▶ 신선 농식품 수출 전망 먹구름
- ▶ UAE서 신선농식품 판촉전...배·딸기·방울토마토 등 판매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밭작물 기계 수확으로 생산비 절감하자
- ▶ 개똥쑥 부가가치 향상...천연오일 대량생산 방법 구명
- ▶ 친환경 유기질비료 제 때 살포하세요
- ▶ 전남농기원, 봄철 농기계 점검·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구축
- ▶ 쌀 고정직불금 ha당 10만원 인상
- ▶ 20일부터 전남 전 지역 AI 이동제한 해제

- ▶ 전남·충북·아이쿱생협,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손 잡다
- ▶ 벼 도열병 피해도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 쌀 직불제 단가 인상한다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브라질 트럭소송 파업, 30일 후 브라질의 대두수출에 영향 미칠 듯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미국 대평야 북부지역 및 중서부지역 대부분의 건조한 기후로 봄밀 파종면적이 확대되어 상승
 -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과 마찬가지로 미국 건조한 기후에 따른 옥수수 파종면적 확대로 약보합 마감
 - 대두 선물가격은 남미 농가들의 높은 수확뿐만 아니라 미국 농가들의 사상최대 면적에 대한 파종 시작 계획에 의해 상승

✽ 고소득 농업사례(전라남도, 남도일보)

- ▶ 곡성의 좋은 공기·맑은 물 머금은 블루베리 ‘일품’
- ▶ 지리산서 낙농 6차산업화로 6억 원 성공신화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벼’ 재해보험 가입 신청
 - 가입기간 : 4. 20. ~ 6. 5.
 - 가입대상 : 벼 재배면적이 4,00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보상재해 : 태풍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특약)
- 청약기관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지원내용 : 가입 보험료의 80% 지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 2015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지원대상 추가 신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 ~ 12월
 - 용자금액 : 23억원('15년 운용자금 70억원중 잔여액)
 -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자재생산 분야 등
 - 용자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일시상환
 - 용자한도 : 개인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5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친환경농업관련 법인

※ 전라남도내 1년이상 거주, 65세 이하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읍면동) : 5. 1 ~ 5. 15(15일간)

▶ '15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 사 업 량 : 30ha
- 사 업 비 : 6,000백만원(ha당 200백만원)
 - 재원별 : 국비 1,200, 도비 180, 시군비 1,620, 용자 1,800, 자담 1,200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3%, 시군비 27%, 용자 30%, 자담 20%
 - 용자조건 : 연리 3%(3년 거치 7년 상환)
- 사업내용 : 내재해형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4. 2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4/27)	전주 (4/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40,800	40,800	40,800	43,000	41,333	↓ 5.1	↓ 1.3
	콩(백태)	35kg	136,000	136,000	136,000	142,000	188,400	↓ 4.2	↓ 27.8
	고구마(밤)	10kg	29,400	28,200	28,000	20,600	25,340	↑ 42.7	↑ 16.0
	감자(수미)	20kg	47,400	45,600	34,360	19,700	24,930	↑ 140.6	↑ 90.1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530	480	506	345	1,035	↑ 53.6	↓ 48.8
	양배추	10kg	5,700	5,800	6,020	3,710	5,439	↑ 53.6	↑ 4.8
	오이(다다기계통)	15kg	31,000	36,000	35,933	27,833	34,304	↑ 11.4	↓ 9.6
	애호박	8kg	15,000	19,400	19,280	15,400	14,977	↓ 2.6	↑ 0.2
	토마토	10kg	32,400	33,600	30,680	33,000	31,913	↓ 1.8	↑ 1.5
	무(월동)	1kg	460	470	502	500	543	↓ 8.0	↓ 15.3
	당근	20kg	22,400	23,200	21,000	26,500	29,167	↓ 15.5	↓ 23.2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40,000	782,800	↑ 28.1	↑ 4.8
	풋고추	10kg	57,400	54,600	58,520	60,450	45,817	↓ 5.0	↑ 25.3
	마늘(난지)	10kg	35,400	35,000	34,720	27,400	37,687	↑ 29.2	↓ 6.1
	양파	1kg	490	710	640	630	957	↓ 22.2	↓ 48.8
	대파	1kg	1,470	1,570	1,494	1,028	1,570	↑ 43.0	↓ 6.4
	파프리카	5kg	24,800	25,000	28,160	23,800	29,267	↑ 4.2	↓ 15.3
	방울토마토	5kg	21,800	23,800	23,120	24,700	23,273	↓ 11.7	↓ 6.3
	딸기	1kg	8,200	8,400	8,840	7,450	7,215	↑ 10.1	↑ 13.7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3,800	63,800	63,600	83,800	77,200	↓ 23.9	↓ 17.4
	배(신고)	15kg	40,800	40,800	39,960	45,200	44,871	↓ 9.7	↓ 9.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4/27)	전주 (4/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28,000	534,000	569,555	↓ 0.4	↓ 6.6
	들깨	45kg	420,000	420,000	426,000	450,000	377,533	↓ 6.7	↑ 11.2
	새송이버섯	2kg	8,600	8,600	8,600	8,000	8,488	↑ 7.5	↑ 1.3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488	6,330	6,509	6,133	5,973	↑ 5.8	↑ 8.6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70	1,858	1,767	1,939	1,777	↑ 1.6	↑ 10.9
	닭고기	1kg	5,559	5,299	5,344	6,734	6,054	↓ 17.4	↓ 8.2
	계란(특란)	10개	1,980	1,978	1,923	1,992	1,864	↓ 0.6	↑ 6.2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2	2,292	↑ 0.2	↑ 11.2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4. 27.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38 천원	4,570 천원	4,055 천원	↑ 3.7	↑ 16.8
	거세	5,621 "	5,537 "	5,304 "	↑ 1.5	↑ 6.0
송아지 (6~7월)	암	2,186 "	2,217 "	1,660 "	↓ 1.4	↑ 31.7
	수	2,643 "	2,597 "	2,503 "	↑ 1.8	↑ 5.6
육우(600Kg)		3,630 "	3,735 "	2,520 "	↑ 2.8	↑ 44.0
젖소수송아지(7일령)		133 "	126 "	16 "	↑ 5.6	↑ 731.3
돼지(110kg)		404 "	381 "	389 "	↑ 6.0	↑ 3.9
육계(원/kg)		1,887 원	1,725 원	1,977 원	↓ 9.4	↓ 4.6
계란(원/특란10개)		1,365 원	1,351 원	1,299 원	↑ 1.0	↑ 5.1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167 원	-	↓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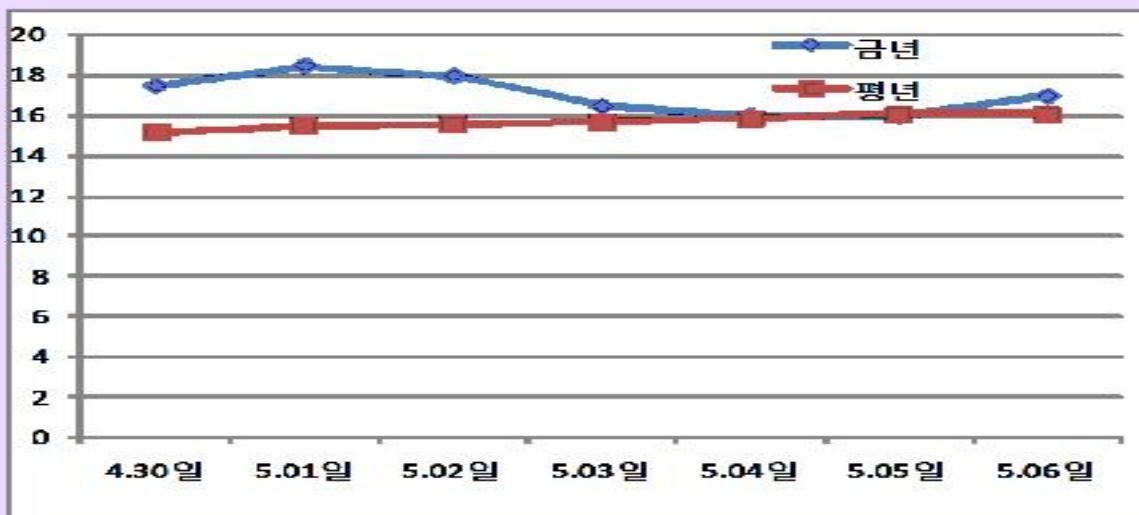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7.1	15.7	1.3	21.4	20.8	0.6	12.7	11.5	0.3	3.1
4. 30.(목)	17.5	15.2	2.3	23	20.4	2.6	12	11.1	-0.9	2.3
5. 01.(금)	18.5	15.5	3	25	20.7	4.3	12	11.3	-0.7	2.6
5. 02.(토)	18	15.6	2.4	23	20.7	2.3	13	11.4	-1.6	2.4
5. 03.(일)	16.5	15.7	0.8	19	20.8	-1.8	14	11.5	2.5	2.5
5. 04.(월)	16	15.9	0.1	19	21	-2	13	11.6	1.4	3.6
5. 05.(화)	16	16.1	-0.1	20	21.1	-1.1	12	11.8	0.2	4.2
5. 06.(수)	17	16.1	0.9	21	21.2	-0.2	13	11.9	1.1	3.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감자, 당근

○ (감 자)

- 감자 가격은 시설봄감자 출하가 시작되어 전월보다 낮지만 평년보다 높은 36,000~41,000원/20kg 전망

○ (당 근)

- 겨울저장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은 21,000~26,000원/20kg 전망

축 산 물 : 육계, 돼지

○ (육 계)

- 도계 마릿수, 수입 증가로 5월 육계 산지가격 1,500~1,700원/kg 전망

○ (돼 지)

- 5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출하 마릿수 감소로 5월 지육가격 기준 kg당 5,000~5,200원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대파·양파 수급동향

○ (대 파)

- 재배면적 : 3,408ha(전년대비 2.9% 감, 평년대비 0.1% 증) - 전국의 30%
- 주 재배 : 진도 1,398, 신안 1,176, 영광 340, 해남 113 등
- 발매기 거래 : 3~7천 원/3.3㎡(전년 3~5천 원/3.3㎡)
- 3.3㎡당 거래가격 : 진도 3~4.5천원, 신안 5~7, 영광 5~7
- 출하동향 : 진도 100%, 신안 100%, 영광 68% 출하
- 도매시장 가격(15.4.21.현재, 상품기준)
 - 대파 : 1,381원/kg(전년 840원 대비 64% ↑, 평년 1,133원 대비 22% ↑)

○ (양 파)

- 재배면적 : 11,077ha(전년대비 8% 감, 평년대비 1% 증) - 전국의 51%
- 조생종 2,137(19%), 중만생종 8,940(81%)
- 발매기 거래
 - (조생종) 8~11천원/3.3㎡(전년 5~7천원/3.3㎡) * 90%이상 거래완료
 - (중만생) 7~8천원/3.3㎡(전년 5~6천원/3.3㎡) * 10%미만 거래
- 출하동향 : 고흥 35%, 무안 2%(하우스 60%) 출하
 - 조생종 본격출하 시기 : 고흥(4. 18 ~ 5. 5), 무안(4. 27 ~ 5. 10)
- 도매시장 가격(15.4.21.현재, 상품기준)
 - 양파 : 851원/kg(전년 698원 대비 22% ↑, 평년 711원 대비 20% ↑)

* 출처 : 전라남도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강진군 "절화수국 12만본 日 수출 목표"

-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 총력...본당 평균 4500원 -
- 강진군은 절화 수국(水菊) 최대 생산지이다. 지난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강진의 수국 재배면적은 약 5.6ha로 전국의 28%, 전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양액재배 비율이 전체 단지의 절반 가량에 달해 타 시군보다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강진산 절화수국은 주 수출국인 일본에서 인기가 더 높다. 올해 목표 출하량은 84만본으로, 이 중 12만본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다.
- 지난해 일본 수출물량은 전국 최대인 9만1000본을 기록했다. 판매액도 2011년 1억9100만원, 2012년 3억4000만원, 2013년 3억9700만원, 2014년 4억9700만원으로 계속되는 엔저의 악조건 속에서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군은 수국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0일 올해 첫 일본 수출과 함께 선도농업인 5명이 현지 경매사·수입바이어를 방문하고 통관과정을 입회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 수국은 현재까지 5000여본이 출하됐고, 본당 최고가 7000원에서 평균가는 45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 군은 국내 집중 출하기를 맞아 황산알루미늄 처리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청보라, 보라, 라벤다 등의 블루 계열의 수국을 시장에 선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강진원 군수는 "수확 후 유통관리 체계화와 다양한 기술 지원을 통해 국내 수국 시장에서 최고라는 칭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산업부,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101개 발굴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수출 유망 농식품을 발굴, 마케팅을 집중지원하고 미국의 대형마트에는 한국 상품 전용코너 개설을 추진한다.
- 산업부는 최근 세계교역증가율 둔화,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수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산업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시장 트렌드·수입 시장구조 등을 분석, 이를 통해 △생활소비재 △건설·에너지·환경 △의료기기·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101개의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 농식품의 경우 생활소비재 분야에서 건강보조식품·조미감·유제품·가공식품·인삼 등이 일단 유망품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산업부는 이들을 포함,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수출상담회를 올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쑤닝기업'·'렌화마트' 등 중국 현지 대형유통망과 연계한 바이어 상담회 및 판촉전을 개최해 우리 농식품에 대한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이와 함께 미국시장의 경우 경기가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 우리 수출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의 대형마트인 '월마트'에 농식품 등을 판매하는 한국 상품 전용코너를 개설키로 하고 월마트 측과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aT, 임산물 해외 판로 다각화...온라인 쇼핑몰·홈쇼핑 홍보 강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해외 유명 온라인 마켓과 홈쇼핑 채널 등 신규 판로 개척을 통해 임산물 수출 확대에 나선다.
- 지난 15일 aT 대전·세종·충남지사에서 김재수 사장 주재로 2015년도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산림조합 등 관련기관과 협회를 비롯해 밤뜨래영농조합·에버굿 등 수출업체가 참여했다.
- aT가 발표한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에 따르면, 올해 임산물의 해외 판로 다각화를 위해 알리바바(중국)와 라쿠텐(일본)을 비롯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일본·대만의 홈쇼핑 채널을 활용해 곱감·아이스홍시·군밤 등 수출 유망한 임산가공품이 집중 홍보된다.
-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aT가 국내 임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할랄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9월에 개최예정인 말레이시아 케이푸드 페어와 연계한 임산물 수출 마케팅을 추진한다.
- 수출인프라 구축 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밤과 뽕은감, 표고버섯 등 단기임산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상품화 사업이 진행되고, 임산물 수출특화단지는 최대 2개 지역(기존 3개)이 추가 지정된다. 수출개척팀 운영 품목은 뽕은감 외에 밤과 표고버섯까지 확대된다.
- 한편 aT는 밤과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업체를 지난 2월에 공모해 최근 선정했다. 밤 수출선도조직으로는 깎 밤과 밤 통조림 등을 수출하는 (주)푸드웰이 선정됐고, 표고버섯은 지원업체가 없어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추후 모집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신선 농식품 수출 전망 먹구름

- 수출액 전년비 14.6% 하락 -
 - 김치·파프리카·인삼 부진 -
 - 엔저·수요 감소 등 악영향 -
- 지속적인 엔저와 해외 수요 감소로 신선 농식품 수출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 3월까지의 농식품 수출이 전년 대비 0.8% 증가한 1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한 2억2600만 달러에 그쳤다. 특히, 신선식품 수출을 주도하는 김치와 파프리카, 인삼 등의 수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 김치는 전년 동기과 비교해 14.5% 감소한 1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적인 엔저 탓이지만, 한류거품이 꺼지면서 소비가 줄고 현지 업체들이 일본인 입맛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출시해 경쟁에서 밀려 유통판로가 축소된 이유도 크다. 파프리카는 10.8% 줄어든 1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파프리카 역시 엔저로 수출 채산성이 낮아지면서 수출 단가와 국내 시세간의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수출농가들이 공급 물량을 내수로 돌리면서 수출실적은 물론 물량까지 줄었다. 인삼은 수출 물량이 8.1% 늘어났으나 금액은 오히려 6.0%(4000만 달러)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중화권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홍콩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3월에 각각 26.8%, 19.2%의 높은 수출 하락세를 보였다.
- 향후 수출 분위기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정대원 진양수출농단 대표는 “파프리카는 수

출시장이 단순해, 엔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낮은 수출 채산성으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삼도 홍콩의 지속된 경기 침체로 고가의 홍삼 제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훈 aT 홍콩지사장은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고, 중국의 사치품조 근절 캠페인도 계속돼 당분간 수요 확대가 힘들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치는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미국·유럽 등지에서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강혜영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선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판촉전 전개와 같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UAE서 신선농식품 판촉전...배·딸기·방울토마토 등 판매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스피니즈(Spinneys) 슈퍼마켓에서 신선 농식품 판촉전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가 신선식품의 중동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우리 신선식품이 현지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지 고소득층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식음료 슈퍼마켓인 스피니즈를 선택했다.
- 판촉전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선식품은 배·딸기·방울토마토·참외 등이다. 배와 딸기의 경우, UAE 지역에 수출되고 있지만 지난해 수출실적이 각각 11만9000 달러, 10만 달러로 낮은 편이다. 방울

토마토와 참외는 아직 중동 지역에 수출된 적이 없는 과일로, 마켓테스트용으로 공급됐다.

- 문태섭 농식품부 할랄식품팀장은 “이번 행사는 UAE에서 처음으로 열린 판촉전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판촉전 이후 안테나숍 설치와 케이푸드페어(K-Food Fair)를 개최해 중동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찻잎 기계 수확으로 생산비 절감하자

- 전남농기원, 참녹 등 다양한 품종 개발로 차 산업 경쟁력 강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차 생산비 절감을 위한 찻잎 기계수확방법을 연구하여 차 재배 생산 여건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기계화 사업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손수확 대신 기계화수확을 위해서는 평탄지에서 균일한 생육을 하는 신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 이에 새로운 신품종을 재배 가능한 평탄지에 심어서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권장하며 농가 기술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차밭은 대부분 재래종 차나무로 새싹이 올라오는 시기가 불균일하여 기계화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기계화를 위해서는 찻잎 생육이 동시에 고르게 올라오는 품종을 육성 재배하는것이 중요하다.
- 한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신품종인 참녹 등 우수 품종을 육성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 아울러 차 수확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재래종 차나무 기계수확 시기를 연구한 결과 2인용 찻잎 수확기를 이용하여 찻잎 새순의 마지막 5엽이 30 ~ 60%출현했을 때 기계수확하는 것이 찻잎의 품질도 우수하고 기계로 수확하는데 적당한 생육조건이었다.
- 이렇게 기계수확하여 차 제품을 만들었을 때 손 수확하는 것에 비

하여 인력난도 해결하고 전체 생산비도 15%이상(찾잎 수확만은 75%절감) 절감 효과를 보였다.

- 차산업연구소 신기호 팀장은 “도내 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차 재배농가에서 신품종 재배와 기계화 작업이 도입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개똥쭉 부가가치 향상.... 천연오일 대량생산 방법 구명

- 질소는 1,000㎡당 13.8kg, 개화기에 수확해야 정유생산성 높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향료용으로 유망한 개똥쭉의 천연에센셜 오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 질소시비량과 수확 시기를 구명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 계통별 유전자원 수집 및 각 용도별 계통선발, 기능성 분석에 따른 가공식품 및 향장제품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 이 중 다른 종에 비해 천연 에센셜오일 생산수율이 높아 향장제품 소재로 유망한 개똥쭉에 대하여 천연 에센셜오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소시비량 및 수확시기를 구명하는 시험을 수행했다.
- 그 결과 질소는 1,000㎡당 13.8kg를 시비할 경우 무시비로 재배하는 것보다 약 10a당 24.8L로 무처리 대비 2.3배 수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정 수확시기는 개화직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생산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화 전 50일 경에는 개화직전보다 약 81% 낮았

고, 개화 후 50일 경에는 약 6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개똥쑥은 일반 쑥과 달리 흔히 먹는 나물쑥의 향이 나지 않고, 향수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나며 종자로 번식하는 1년생 초본식물이다.
- 한방에서는 청호의 기원식물인 개똥쑥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어 왔고, 우리나라 동의보감, 향약집성방에서는 학질, 허열 등을 치료하는 청열약으로 알려져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연구사는“지속적으로 나물용, 뜸용, 엑기스 등 전통적인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성 음료, 비누, 화장품, 방향제 등의 가공식품 및 향장 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연구에 힘을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 쑥 재배면적은 약 181ha로 전국 261ha에 비하여 69%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나물용, 떡용으로 유통되고 전국 생산량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현재 여수 거문도, 진도 조도 등을 중심으로 700여 농가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친환경 유기질비료 제 때 살포하세요

- 전남도, 30일까지 권장...살포 상황 일제 점검키로 -

- 전라남도가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 공급한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전량을 적기에 살포하도록 시군과 합동으로 대농가 지도에 나섰다.
-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에 공급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는 74만 톤으로 510억 원이 지원됐다.

- 현재까지 마을 회관 주변이나 도로에 적재된 비료는 영농기 이전인 오는 30일까지 논, 밭, 과수원 등에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시군과 함께 살포 상황 일제 점검을 통해 30일 이후까지 방치된 비료에 대해선 추가 살포 희망 농가에 전배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연도 비료 신청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기로 했다.
- 또한 비료 살포가 힘든 작업임을 감안해 시군과 농협이 적극 협조해 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이 보유한 농기계로 공동 살포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요청했다.
- 2013년에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을 못해 2014년부터 2015년에 공급 받지 못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추가로 신청하면 2016년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다.
- 위삼섭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비료는 땅심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변에 방치하지 말고 적기에 살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농기원, 봄철 농기계 점검·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겨우내 장기보관 중인 이앙기 등 농기계 점검·정비 당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1년간 보관중이던 농기계를 꺼내 철저히 점검·정비를 해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기계화 영농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은 금년 3월 여성농업기계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총 11개 기술교육 425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이뤄진다.
-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는 4월은 여성농업기계과정과 기계화영농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특히 4월교육은 일년 농사에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 준비 기간으로 승용이앙기를 중심으로 취급조작과 사용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또한 기술원 전문강사를 통해 운전조작기술과 점검, 정비교육으로 기계수명 연장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적기에 영농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같은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기계화 영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농가경영비 절감과 생력화 영농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 3월 농기계교육에 참여한 나주 금천면 최모씨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은 농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뿐 아니라 기계수명을 연장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기계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좀더 세밀한 교육이 이뤄워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혜량 농업교육과장은 “오래 두었던 농기계는 사용하기 전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길들이기를 위한 공회전이 필요하다”며 “농기계 안전 사용과 철저한 점검·정비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구축

-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5년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해남 대명유통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공모에서는 해남군과 경남 거창군이 사업자 선정에 놓고 막판까지 경합했으며 최종적으로 해남군이 확정됐다.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은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과 가격 변동이 큰 무·배추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가공시설(절임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원(국비 21억원·지방비 21억원·융자 14억원·자부담 14억원)을 투입한다.
- 대명유통은 해남 황산면 황산리에 사업 부지 1만㎡를 확보했으며 토목, 건축설계, 공장등록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저장·가공시설이 완공되면 연차적으로 지역 무·배추 재배농가와 100ha 이상 계약재배를 확대한다.
- 시설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무·배추 수급 조절은 물론 5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기대된다. 전남 지역 배추 재배 면적은 8025ha(가을배추 4003ha·겨울배추 4022ha)로 전국 1만9453ha(가을배추 1만5233ha·겨울배추 4220ha)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전남일보

◆ 쌀 고정직불금 ha당 10만원 인상

-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쌀 고정직불금 단위 면적당 지급단가를 ha당 지난해 90만원에서 10만원 오른 평균 100만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 농지 용도별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0만6천229원 인상된 107만6천416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7만9천672원 오른 80만7천312원이다.
-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지법 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농지로 구분,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토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올해 전남도내 농가에 지급될 쌀 고정직불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70억원 늘어난 1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농가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1만원 늘어난 평균 110만원 (농가당 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이다.
- 2015년 쌀 고정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추 농업경영체(변경)등록과 통합 신청해야 한다.
-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농가는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남도일보

◆ 20일부터 전남 전 지역 AI 이동제한 해제

- 전라남도는 지난 3월 5일 구례에서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살처분과 소독조치를 완료하고, 오리 축사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20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24일 영암지역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재발생한 이후 울들어서도 무안·나주·구례지역에서 발생했으나, 무안지역은 3월 2일, 나주지역은 3월 27일 이동제한이 해제됐었다.
- 구례지역은 3월 5일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요건을 충족, 도내 모든 방역지역에 대한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 그동안 전라남도는 시군과, 축산위생사업소 등과 함께 26개의 AI 상황실을 24시간 유지, 닭·오리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 오리 폐사체 일제 검사, 최대 131개소의 이동통제초소 운영,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농가에 500여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도 예비비 1억 원을 들여 발생농가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잔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 위해 훈증소독제를 공급한 바 있다.
- 앞으로도 최근 계절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고병원성 AI를 막아내기 위해 연중 상시 방역체제하에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농가의 의심축 신고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 특히 오리는 농장 사육 단계에서 도축 출하 전에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도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1단계 입식 전 비어 있는 축사를 검사한 후 입식 허용 △2단계 사육 중에 30일령 이상 오리에서 발생한 폐사체 검사 △3단계 도축 출

하 전 검사 등 3단계로 상시예찰 검사를 강화해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도내 모든 지역에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경기·전북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AI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농장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전남에선 지난해 9월 이후 7개 시군에서 42건의 고병원성 AI(H5N8형)가 발생해 63농가의 닭과 오리 92만 7천 마리가 살처분·매몰됐으며, 구제역은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충북·아이쿱생협,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손 잡다

- 전라남도는 2015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충북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제공을 위한 소비자·생산자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과 서로 협력기로 했다.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정정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오미예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장은 18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친환경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도농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은 △전라남도과 충청북도는 2015국제농업박람회와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 협력 △아이쿱생협은 두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후원하고 홍보 및 참여 △전라남도과 충청북도는 아이쿱생협의 소비자 10만인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 △전라남도·충청북도·아이쿱생협은 윤리적 소비와 생산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공생,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

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협약식과 함께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 전국 22만 소비자조합원의 참여와 홍보를 위해 오미예 이사장을 2015국제농업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라남도와 충청북도는 2015국제농업박람회와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기로 했다. 또 아이쿱생협은 박람회 참가, 전남지역 농산물 구매 약정, 전국 아이쿱생협 자연드림 매장을 통한 박람회 홍보, 조합원들의 관람 등 2015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에 큰 힘을 보태기로 했다.
- 한편 2015국제농업박람회는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나주시 산포면)에서 개최된다.

*출처 : 전라남도

◆ 벼 도열병 피해도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20일(월)부터 6월 5일(금)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 벼 보험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현장 농가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하여 상품개선을 하였는데,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도열병’을 보상하는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90% 보장형 추가) 하는 등 상품을 개선하였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작물재해보험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http://www.nhfire.co.kr>>보험상품>농작물재해보험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밭 직불제 단가 인상한다

-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가 밭작물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밭직불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마련,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부분은 양념류·인삼류·엽근류 같은 밭작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중 FTA가 대외개방을 완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아래 밭작물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밭농업 직불금을 1ha당 40만원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또 밭농가 소득안정 차원에서 수입(收入)보장보험을 밭작물 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수입보장보험은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줄어든 농가 조수입 일부를 보험금으로 보충해주는 제도다. 올해 양파·콩·포도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 농식품부는 FTA 직접보상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밭동기준·보전율·시행기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 또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 적용 사업을 확대해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는 우수인력 육성, 중소농업인, 농업전후방산업, 농업자본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비준동의

안과 국내대책안을 5월 초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과 같은 세제지원 확대, 가업승계제도 개선 등 농업계로부터 수렴된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경유 공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관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 중이다. 2014년 말 기준 전체 농업 난방기 사용농가 7만 7695가구 중 5만8983농가(76%)는 경유만 사용하고, 7859농가(10%)는 경유와 등유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농식품부는 대체연료인 등유가 경유보다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등유가격 인하 ▲에너지절감시설·신생에너지시설 설치자금 금리(3%) 인하 ▲융자금 확대 같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세등유 배정량을 늘리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민신문

7. 해외 농업정보

◆ 브라질 트럭소송 파업, 30일 후 브라질의 대두수출에 영향 미칠 듯

브라질연구소 AgRural 애널리스트 Fernando Muraro에 따르면, 다음주 브라질 트럭수송업자들이 다시 도로를 차단하기로 결정하고 시위가 30일 이상 지속된다면 브라질의 대두수출은 둔화될 것이라고 한다. 3월 초 2주간 도로를 차단하였던 트럭수송업자들은 현재 브라질 정부가 고정 화물요금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4월23일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두 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들은 고정요금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며 운송요금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두수확 막바지에 있는 농가들은 이번시즌 수확을 늦게 시작하였다. 이로인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량은 6.5백만 톤으로 전년동기 9백만 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물론 중국으로의 전체곡물 수출량은 작년과 비슷하다. 브라질은 3년연속 사상최대 대두수확 및 과종면적 확대에 따라 Muraro는 2015/16년에도 브라질의 대두면적이 31.5백만 헥타르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대체적으로 낮은 국제 대두가격 및 새로운 재배지역의 재정적 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낮은 대두가격은 대두판매를 둔화시켰다. 농가들은 2014/15년 대두의 53%를 판매했으며 이는 93.8백만 톤으로 전망된다고 하나, 이는 전년대비 63%, 5년 평균대비 64%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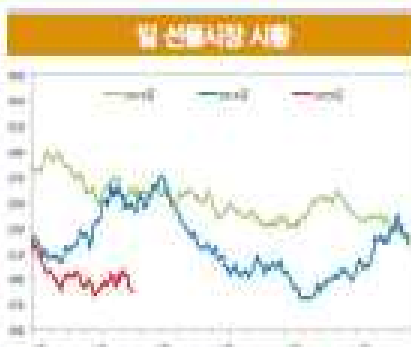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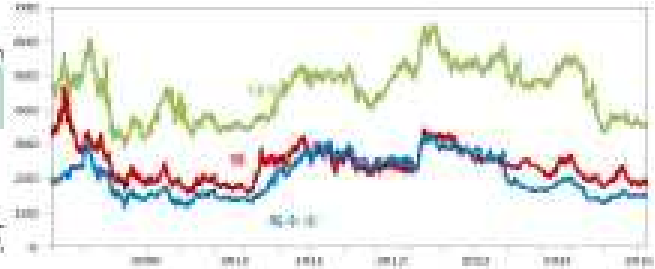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5. 4. 21.(시카고 선물거래소)

USDA, 옥수수 및 밀 파동연적 확대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4.20)	전일대비	전월평균 (’15.3)	2014 평균
밀	180.20	▲0.8%	187	216
옥수수	148.81	▼0.4%	151	164
대두	369.13	▲0.9%	360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계곡연질밀) 55파운드, 옥수수, 대두의 단위(단위)는 1부셸, 옥수수, 대두의 단위(단위)는 1부셸, 옥수수, 대두의 단위(단위)는 1부셸.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상승세를, 한편 USDA에 따르면 미국 대맥이 북부지역 및 중서부지역 대부분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파동연적 확대되었다고 할 상승세를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과 마찬가지로 미국 건조한 기후에 따른 옥수수 파동연적 확대에 의해 상승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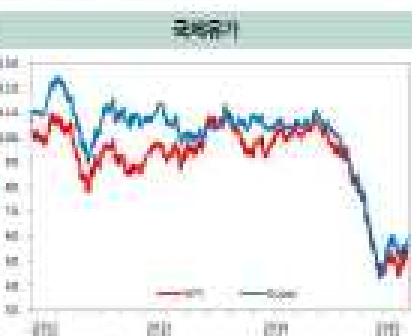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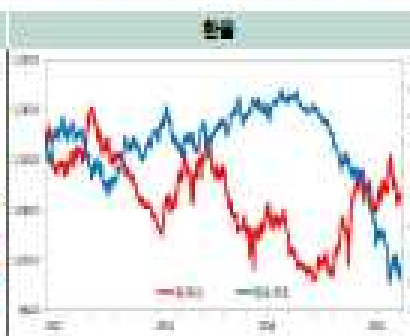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상승세를, 남미 농가들의 높은 수확량에 따라 미국 농가들은 다가오는 주간의 실적회전 연적에 대한 파동연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동향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WTI 선물가격은 유가 하락에 따라 하락세를, 미국 석유 리저브 감소에 따라 하락세를, 미국 석유 리저브 감소에 따라 하락세를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22	▲0.5%	환율	원/달러	1,095	▼0.4%		
	옥수수	175	-		달러/유로	1,079	▲0.2%		
	대두	365	-	국제유가	WTI	55.74	▼1.7%		
	쌀	400	-		Dubai	59.21	▲0.8%		

주) 밀(US 85W Grade), 옥수수(US 87W Grade), 대두(US Grade II), 쌀(Thai 100% Grade II), WTI(원유), Dubai(원유)

2) 기준일은 '15.4.15(수출가격), '15.4.20(환율), '15.4.17(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리사회, 한국농림, 한국석유공사)의 실적회로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곡성의 좋은 공기·맑은 물 머금은 블루베리 ‘일품’

- 귀농 3년차...지난해 5천개 화분서 15t 수확 -
- “곡성지역에서 블루베리 농사에 관심있는 청년들과 의기투합해 기술도 전수하고 서로 품앗이 형태로 지냈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433 향촌 블루베리 조주(26) 대표는 현재 전남생명농업대학 청년 리더반에 재학 중으로 삼촌 서상만(53)씨와 함께 이 곳 향촌블루베리 농장에서 3년째 블루베리를 정성껏 재배하고 있다.
- 조 대표를 만나기 위해 농장을 방문했다. 조 대표는 삼촌과 함께 한창 화장실 신축 공사 중이었다.
- 그 옆으로는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곳 역시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산꼭대기 위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 블루베리 관수용으로 쓰인다고 조 대표는 말했다.
- 이 곳 곡성 좋은 공기와 물을 머금은 향촌 블루베리는 조생, 중생, 만생 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확하고 있다.
- 그러나 조씨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 군 제대 후 광주에서 회사 취직을 위해 사방팔방 노력을 해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민하던 중 지난 2012년 귀농한 조씨의 향촌 블루베리 농장은 총 1만4천876㎡(4천500평), 5천개의 화분에

서 지난해 15t의 블루베리를 수확했다.

- 하지만 말이 4천500평이지 삼촌과 둘이서 이 곳에 블루베리 화분을 얹히고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과 조경을 가꾸는데 인력, 시간, 체력적으로 많은 고비가 있었다.
- 조씨는 담양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계시는 삼촌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농사 일도 힘에 부칠 만도 하지만 전남생명농업대학에 진학,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블루베리 농장을 일궈나가고 있다.
- 삼촌 서씨는 "처음 이 곳 산은 거의 돌산 수준으로 큰 돌부터 작은 돌까지 일꾼하나 쓰지않고 전국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블루베리 농장으로 만들기까지 조카가 나를 따라 일을 배우느라 고생스러웠겠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질 것이다"고 귀띔했다.
- 그러나 삼촌 서씨는 조카에게 일을 가르치면서 한가지 꼭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서씨는 "농사 공유도 좋지만 다른 지역처럼 젊은 청년 창업자나 기존 농민들과 어울려 농사를 게을리 할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 하지만 삼촌의 걱정은 기우에 그쳤다.
- 조씨는 "젊은 패기하나만 믿고 무작정 삼촌을 따라 일을 배우면서 고생하기로 마음 먹었기에 고생스러움 따윈 잊어버린지 오래다"며 "블루베리에겐 부엽토가 제일 좋은 영양제인 것 같아 삼촌과 겨울만 되면 썩은 나무에서 부엽토를 긁어모으는 일이 제일 힘겨웠다"고 말했다.
- 그는 "삼촌의 말대로 남들과 어울리다보면 농사일에 등한시 하게

될까봐 그럴때 마다 자신을 가다듬기 위해 농사에 필요한 부산물을 만들기에 더욱 열중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향촌 블루베리는 입소문을 통해 직거래로 80%가 팔려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종합병원과 현대병원 등 주로 건강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
- 조씨는 "군 제대 후 단순한 수확과 판매로 끝나는 농사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전남생명농업대학 청년리더반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다"며 "이 분야에서 배우게 될 내용과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농사에 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조씨는 또 "단순한 수확판매가 아닌 6차산업을 통한 블루베리의 높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도 훈풍이 불러 왔으면 좋겠다"며 "블루베리는 생과로도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는 추세지만 생과만 팔아서는 역부족인 것 같아 간편식품화(가공공장)를 통해 블루베리 양갱을 만들어 학교나 군납용으로 제작해 해봤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남도일보

■ 지리산서 낙농 6차산업화로 6억 원 성공신화

- 구례 초원목장 박윤규 대표, 젓소 자연방목치즈 가공체험 등 모델 제시 -
- 자연순환형 방목축산으로 젓소를 기르고, 치즈와 요구르트를 가공해 아이쿱생협에 납품하는 등 낙농의 6차산업화로 수억대 소득을 일군 농가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구례 산동면의 초원목장 박윤규(67) 대표.

-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1979년 불모지였던 땅을 지금의 농장으로 일궜다. 3만여 평의 초지에 젖소 120마리를 자연방목하고 친환경우유를 생산 가공해 ‘지리산 치즈랜드’라는 브랜드로 아이쿱 생협에 전량 납품한다.
- 특히 치즈체험과 함께 승마체험은 물론 목장 앞쪽에 조성된 유원지를 활용한 뱃놀이 등 생산·가공·유통과 체험 등 6차 산업의 전형적인 모델로 성장했다.
- 실제로 2007년부터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2012년 동물복지농장을 지정받아 안전한 축산물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우유를 가공해 생산된 유가공품은 대도시 친환경매장에서 인기가 높아 생산이 부족할 정도다.
- 이처럼 초원목장은 지리산이 품고 있는 가장 깨끗한 자연환경의 넓은 초지에서 맘껏 뛰놀며 운동하고, 싱싱한 푸른 풀을 충분히 섭취해 생산한 가장 자연친화적인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우유를 가공해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 연 6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또한 5년 전 조성한 치즈체험관은 박 대표의 아들 박종현 씨가 가업을 이어 이곳에 정착, 젖소는 물론 초지 관리와 승마장 운영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치즈체험관을 운영하는 박 씨는 “앞으로 좀더 고품질의 치즈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국 제일의 치즈를 생산하겠다”며 “찾아오는 체험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힐링캠프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컨셉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낙농

(젓소) 힐링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는 그동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사업은 물론 가축 운동장 확보사업, 친환경축산물인증, 축산물 HACCP 지원 등으로 농가의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 명실공히 친환경 축산물 생산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전남을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지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9. 사업신청 안내

◆ ‘벼’재해보험 가입 신청

- 가입기간 : 4. 20. ~ 6. 5.
- 가입대상 : 벼 재배면적이 4,000m²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보상재해 : 태풍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특약)
 - 병해충 : 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 청약기관 :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지원내용 : 가입 보험료의 80% 지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 벼 1ha 기준 보험 가입단가 : 473천원(보조 378, 자담 95)

◆ 2015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지원대상 추가 신청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 ~ 12월
 - 융자금액 : 23억원(‘15년 운용자금 70억원중 잔여액)
 -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자재생산 분야 등
 - 융자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5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친환경농업관련 법인
 - ※ 전라남도내 1년이상 거주, 65세 이하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읍면동) : 5. 1 ~ 5. 15(15일간)

◆ '15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 사업량 : 30ha
- 사업비 : 6,000백만원(ha당 200백만원)
 - 재원별 : 국비 1,200, 도비 180, 시군비 1,620, 융자 1,800, 자담 1,200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3%, 시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3년 거치 7년 상환)
- 사업내용 : 내재해형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주간
31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